

(서식 3) 자기소개서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I 지원동기

21세기 급변시기에 한국교육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진행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와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소멸과 함께 폐교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읍도 예외는 아닙니다. 붕괴 직전의 교실, 배움으로부터 도피하는 아이들, 고통스런 교사들, 가정의 위기와 사회모순이 교육모순에 응축돼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당하면서까지 현장에서 ‘참교육’의 깃발을 놓지 않았던 결과가 겨우 이것 뿐인가 하는 자괴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제가 가진 철학과 부합하는 진보 교육감이 탄생함으로써 새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기 ‘김승환교육감 인수위원회’로 일하면서 새 교육감 교육철학 구현을 위해 정책 개발과 대안 제시에 노력했습니다. 특히 인사 및 조직 개편에 심혈을 기울인 청사진을 만들어 보고하여 청렴한 전북교육개혁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각종 정책 입안과 자문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자문은 일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현장의 요구와 정서를 반영한 각종 개혁정책을 교육의 꽃인 단위학교에서 책임있게 추진하여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담임교사 14년, 교무부장 4년, 학생부장 6년의 경험은 정읍고에서 현장성을 담보한 교육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2012년 학습연구년제를 통해 ○○○○○대학원에서 **경영과 조직행동을 배우면서** 조직과 인간행동에 대해 공부한 것을 최대한 정읍고의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차례 도교육청 조직과 사업진단 연구단 위원으로 위촉되어 전북교육력 제고 목표로 각 부서와 각급 기관들의 사업을 진단하고 연구한 경험은 민주적으로 설정한 학교교육비전 실천을 위해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에 답으로 귀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정읍고등학교가 혁신학교 정신을 이어받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 학부모·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명문고등학교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행히 정읍고는 젊은 교사들의 열정과 함께 놓여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정된 기숙형 공립학교로 학교발전의 기름진 토양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려 가꾸고 꽃피우며 결실을 맺는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II 성장과정(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교사)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저는 75년 중학교 2학년 때, 큰형을 따라 서울로 전학을 가서 서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중랑천 뚝방길 부근으로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무대와 같은 판자촌이 수십 리에 걸쳐있는 빈민촌이었습니다. 곁에서 가난한 자들의 삶을 본 경험은 나중에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알게 모르게 작

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서울에서 중학교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공부로 선생님과 친구들의 인정을 받고 다녔던 저는 하루아침에 주류에서 주변인으로 떨어지는 충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존재감이 미미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주목 받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얼마나 어린 영혼과 인간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교사로서 저에게 아이들을 하나하나 마음속까지 철저하게 살펴볼아야 하는 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에 입학 후, 채플시간에 배운 예수님은 가장 인간적인 신, 축복을 팔기보다는 낮은 곳에서 가난한 자를 영접하고, 부정부패한 권력자를 저주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제 인생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Ⅲ. 교육에 대한 소견

제가 지닌 교육에 대한 생각을 요약하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개성과 적성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학교와 학원으로 뱅뱅 도는 아이들이 빛나는 꿈, 빛나는 청춘을 담보로 해서 돈과 성공으로 대표되는 미래의 행복을 과연 몇 명이나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좋은 학교로 진학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교로** 적성에 따라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고 인생을 설계하게 해야 합니다. 흔히 성공이라는 타이틀 아래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처럼 여기게 하는 병폐를 끊고 주체적 인간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해야 합니다. 산업화시대 어른들의 사고방식과 꿈을 더 이상 21세기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답이 하나만 있는 사회가 아니기에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다양한 접근법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꿈이 없는 아이들과 지친 선생님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자발성에 기초한 인성교육이 답입니다. 그게 실력이고 성적으로 귀결됩니다. 협업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연계능력, 민주시민으로서 시민성은 미래 인재상입니다. 학교는 공부도 공부지만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 평생 먼 길을 지치지 않고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을성 있는 아이가 성공합니다. 배려하는 아이가 리더로 성장합니다. 교사와 부모가 이런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Ⅳ 교육실천활동

대학교 3학년 때 ○○○ 부근의 ‘공심야학’에서 소년원으로 파견되어 국어와 영어를 강의했습니다. 이어 우연히 군대 생활도 대구교도소에서 했는데 **2년을 무기수를 대상으로 한 검정고시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흉악범인 그들 상당수는 어려서부터 깊은 상처를 지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무지, 무관심과 학대 등이 그들의 현재를 만들었습니다. 뒤늦은 배움과 때늦은 후회지만 검정고시 통과로 새 인생을 설계하는 그들에게 저는 새 삶의 열정을 살리는 작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희망을, 비전을 상실한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어 전역 4개월만에 사립공채에 합격해 이듬해 1987년 ○○ ○○○에 임용된 저는 교육계 내에 가득찬 부조리와 불합리, 경직된 학교 문화와 재단 사람들의 전횡 등은 교육과 교사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에 1988년 사학의 부정부패 척결과 결혼하면 퇴직하는 여교사 신분보장 등을 요구하며 많은 동료교사들과 함께 3일 간의 농성을 진행한 끝에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북교사협의회와 전교조 초대 홍보부장으로 활동하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으로 5년이란 긴 세월을 해직 당했

으나 국어교사모임을 결성하여 긴 공백을 연구 실천 활동으로 교사로서 꿈을 지켜나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전북국어교사모임 활동을 통해 수많은 책과 공동연구서를 발간했고 ‘전북 이야기 대회’ 등 학생대상 교사대상 각종 교육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가는 학교와 교육청마다 독서캠프를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21세기 미래를 주제로 한 독서활동을 전개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미래사회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94년 ○○ ○○중에 복직한 저는 동료들과 가정방문 운동을 전개한 결과 아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 및 폭력예방과 진로지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교조 ○○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교원의 일숙직 폐지운동**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동**을 지속하면서 교원복지와 민주적 학교문화를 이루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2001년 ○○중에서는 학생부장을 맡아 추운 겨울에 머리도 못 말리고 오는 아이들을 위해 7시 40분 등교를 8시 30분으로 만들었고, 당시는 생소했던 **교복공동구매운동**을 벌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고에서는 교무부장을 맡아 공부하는 엘리트 ○○고를 만들기 위해 힘썼으며, ○○중에서는 일개 교사로서 수년간 불신과 증오로 **분열된 교무실을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중학교 ‘도학업성취도평가’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가에 눈을 떴고 2008년부터 3년간 평가위원이 주축이 된 평가연구 자생서클 ‘레벨업’과 ‘실마리’를 조직 운영하여 전라북도 성취도 평가의 질을 개선하는데 일정 역할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4년간 도교육청 논술 출제위원과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북 논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노력했습니다. 2009년에는 교육과정 정책위원으로 참여해 2009개정교육과정을 연착륙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저는 친구부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좋아하고 많이 만났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도내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한 친구는 인성위주의 교육관으로 다른 반에 비해 서울대를 2배 더 보내는 내공의 소유자로 그를 통해 많은 영감과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30년에 걸친 국어교사모임활동은 전국적인 국어교사 네트워크를 지니게 했습니다. 전교조 활동은 열정에 찬 수많은 참교육 실천가를 만남으로써 자꾸 안일해지는 마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약 9년에 걸친 도교육청 정책 자문활동은 수많은 교육청 내·외부 인사들과 친교를 쌓으면서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우의를 다지게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작은 재능을 베풀었습니다. 오지랖 넓다는 편견을 들으면서까지 대입을 앞둔 아이들의 자기소개서와 면접 컨설팅을 십여 차례 이상을 무료로 진행해 SKY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에 입학시키는 많은 성과를 거두어 내일처럼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행착오 뒤에 얻은 성과입니다. 저는 균형감을 가장 중시합니다.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고민합니다. 저는 쥐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게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상관없다는 합리주의자라고 자부합니다. 그간 저에 대해 상사들은 전교조 출신에 대해 편견을 가졌으나 얼마지나지 않아 수정했습니다. 강단 있고 할 말은 하지만 조직이 정한 방침에 적극 따랐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협상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생각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한 발짝이라도 전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읽으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발자국을 보라 했습니다. 저는 살아온 가운데 조금 흐트러지긴 했지만 평화와 정의가, 만인의 행복을 위해 오직 한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손석희 앵커의 말처럼 정읍고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운영계획서

소속		직위		성명	
----	--	----	--	----	--

I

학교 교육 목표

1

학교교육 기본방향

교육비전

꿈·끼 UP, 배움 UP 전북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교육지표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미래인 육성

가. 자신의 미래를 역동적으로 설계하는 ‘개방적 인간’ 육성

나. 생명을 존중하고 민주시민정신을 지닌 ‘건강한 인간’ 육성

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 육성

라. 자기 철학과 자기관리능력을 지닌 ‘주체적 인간’ 육성

2

학교경영의 기본 방침

배움이 즐겁고 꿈을 키우는, 도전하는 정읍고등학교



본질에 충실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편성 운영
- 미래 역량을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재편성과 운영
-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고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학생의 특기와 소질을 키우는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 미래공방에서 꿈을 개척하는 자발적 창업동아리 운영
- 기초학력보정을 위한 ‘칸 아카데미’ 과정 운영
- 우수학생 대입을 위한 특화된 방과후 교육과정 운영
- 중위권 수학 포기자 중심 공무원-수능 병행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

학생자치역량을 키우고 실천하는 학생회 및 기숙사운영 지원

- 비전을 스스로 창출하고 실천하는 비전 캠프 운영
- 학생 스스로 제정하고 지키는 학생 생활규칙 운영
-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 60일 습관달력 프로그램 운영
- 소질과 적성, 여가 중심의 1인 2동아리 운영
- 스스로 공부하여 탐구하는 조별 자율적 현장체험 활동 지원
- 또래상담, 또래조정, 멘티-멘토제를 통한 학생자치 구현
- 민주적 기숙사 운영위원회 구성과 자치역량 강화

자발성에 기초한 교원학습공동체와 전문성 신장 활동 지원

- 교실 수업개선 및 프로젝트 수업 구성 지원
- 교권보호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및 교직원 복지 신장
- 교감을 중심으로 한 교무전담인력 재배치로 교원업무 경감
-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로 책임교육 및 학교자치 구현
- 난상토론 및 델파이 기법을 통한 학교 비전 모색 및 실현
- ‘학습공동체’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주적 동아리 확대 지원
- 1교사 1저서 집필 운동 전개 -전공저서 출판 지원
- 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출제자 초빙 영역별 30시간 연수 지원
- 대입 효과성 검증된 인사 초빙 대입지도 연수 지원
-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한 교육과정 개설 운영 능력 연수 지원

가정-학교-지역 3통 학교 추진

- ‘가정방문운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정-학교-학생 상호이해와 소통
- 정읍교육협동조합 연대로 상생의 ‘방과후 학교’ 추진
- 교장실을 편안한 교육공동체 소통의 장으로 실질적 운영
- 학부모 아카데미 연 4회 운영으로 학교-가정 연계 공감 교육 추진
- 교직원, 학부모, 동문, 지역 인사가 참여하는 미래전략워크숍 운영
- 지역아동복지센터 협력체제 구축으로 복지대상 학생 연계학습 및 생활지도

누구나 주인인 유리알 행정 구현

- 다양한 의견 경청과 수렴으로 학교 행정 신뢰도 제고
- 위임전결규정 적극 홍보로 담당자에게 권한 이양 및 업무 감축
- 다모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로 민주적 행정체제 구축
- 학교홈페이지 활성화와 홍보를 통한 정보공개 확대
- ‘급식이 맛있는 학교’를 위한 급식실 현대화와 훌륭한 영양교사 초빙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참여하는 급식운영위원회 운영
- 행정실과 교무실 간 벽 허물기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3

정읍고등학교 학교운영의 기초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주인은 섬겨야 한다. 하지만 자식들과 제자들이 성공하여 잘 먹고 잘사는 것에만 매달려 많은 아이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삶으로부터 소외되게 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학교 현장이고 부모와 교사이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도 못 거둔 것은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 없이** 이제까지의 기성세대 성공의 법칙에 관습적으로 따라온 참혹한 결과이다. 자격증과 스펙만 수십 개 따게 하고도 갈 데 없는 신세를 만드는 것이 지금 학교 현장이 아닌지 반문한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이유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러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놀고, 맛있는 것 나누어 먹으면서 같은 세대를 고민하고 공감하며 웃고 울고 떠들기 위해서이다. 문제풀이 공부만 시킨다면 오히려 유명학원과 인터넷 강의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학교는 학교만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대입 수시의 면접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주로 눈여겨보는 학습 과정 중에 조별로 토론과 발표하기, 학

생자치에 따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등은 사교육으로 대치할 수 없는 공교육 고유의 것들이다.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은 끝이 난 것 같고 계급 재생산만 하고 있는 현재, 인구감소와 더불어 농촌교육은 더할 나위 없이 쪼그라들었다. 더구나 정읍지역은 오랫동안 중학교 학생 수보다 고등학교 정원이 많아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경쟁위주의 전략으로는 호남고의 집중력을 당해낼 수 없다.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스스로 찾아 공부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지 않는 한 조금씩 고사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지방소도시 교육 성공모델을 정읍고등학교에서 만들 고자 한다. 그 출발점은 **운동**으로서 교사의 열정과 자발성에 기초한 **전문학습공동체** 성공이다. 단 교사가 행복하지 않는 한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교사의 자긍심을 북돋을 수 있도록 학교장과 학부모, 지역 사회는 함께 지혜를 모으고 책임을 나누어져야 할 것이다. 그 일선에 교장이 앞서서 나가야 한다. 기존의 혁신학교로서 정읍고교육과정과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한 단계 더 발전된 정읍고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통해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

2018 정읍고등학교 현주소

S(강점)	W(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형고등학교로 교육청과 시청 지원체제 확립 * 열정 있는 젊은 교사들과 노련한 교감, 교사 균형 * 시내 인프라의 접근성과 학생 주거지에서 가까움 * 혁신학교 지정에 따른 개념 인지와 행·재정 지원 * 지역 각종 체험학습가능 사업체와 가까움 * 전통과 선후배의 끈끈한 유대감이 있음 * 소도시 특유의 인연에 의한 생활지도 유리 * 자율학교로서 교육과정 편성의 탄력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고 순환전보에 따른 정책 일관성 유지 어려움 * 동창회 등 지역사회의 기대에 따른 압박감과 불신 * 미래 사회 인재상에 대한 학교구성원간 공감 결여 * 혁신학교와 학력간 상관 관계에 대한 우려 * 상위권 대학교에 대한 구성원 내부 인지부조화 * 정읍지역 전체 수시전형 수능 최저등급 유지 비상
O(기회)	T(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변화의 초기 단계를 벗어남 * 2015개정교육과정과 문이과 통합에 따른 교육과정 재정립 요구,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대로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가능 * 2020년부터 관내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사립고등학교의 우수학생 입도선매 완화 * 상, 중, 하 맞춤형 및 가변차선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요구 반영 가능 * 지역사회와 학부모 열의를 비전 창출의 동력으로 전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절대 학급 수, 학생 수 감소 * 호남고, 배영고의 산하 중학교에서 인재 입도선매 * 사립고의 행·재정 집중과 선택의 우월성이 비교 우위 * 교실붕괴 및 학교붕괴에 따른 교사의 자존감 만족감 저하 *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과 학부모 민원 증가 * 지역 경제 약화에 따른 재정 지원 감소 추세 * 학년당 80명 이하로 떨어질 때 내신등급 유지 어려움

1. 졸지 않는 학교, 행복한 학생

미래 세대인 고등학생의 현주소는 하루 12시간 이상 과도한 노동에 지친 학습노동자이다. 배우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미래를 보장하는지, 무엇에 필요한지도 모른 채 공부한다. 질문도 없이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면서 익힐 새도 없이 또 다른 지식을 계속 쌓는 것이 과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일까? 4차 산업혁명시대의 알파고의 충격이 우리에게 위기의식만 심어줄 뿐 아직도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 현재 학교 교육은 입시결과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학교는 학생의 미래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과정부터 평가까지 새 시대의 패러다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에 기초학력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수업개선과 평가 개선 그리고 학생 맞춤형,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학생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아이들은 졸지 않고 수업을 즐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가변차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생 자치와 또래 만남,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고 이를 교과학습으로 선순환 시키는 모델을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

2. 믿어라. 그리고 기다리자.

아이들은 가능성의 덩어리이다. 그 아이의 30년 후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런 아이들을 몇 가지 행동과 성적만으로 이미 규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아이들을 눕히고 손목과 발목을 늘여 빼거나 자르거나 하여 죽이는 것과 똑같다.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아이들을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줄 세워서 낙인찍는 일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따라서 다양한 아이들을 다양한 비전과 방법으로 스스로 깨닫고 공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이 키가 클 때는 갑자기 수십 센티미터가 크기도 한다. 공부도 그러하다. 공부 더듬의 아이들도 어느 때가 적절한 기회와 성취보상이 주어지면 갑자기 성장하게 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배워야 21세기 미래핵심역량인 협동심과 남에 대한 배려심, 리더십이 내재화되고 학습되는 것이다. 무조건 학습의 양에만 무게 중심을 둔 기존 교육시스템은 뇌과학 측면에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가 학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 학습 동기 유발과 목표접근 방법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 조급하게 좋은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그나마 남아있던 공부에 대한 흥미도를 떨어뜨려 해 배움으로부터 도피하게 만든다. 스스로 자신을 믿는 긍정적 자아관을 심어줘야 한다.

3. 패배 의식과 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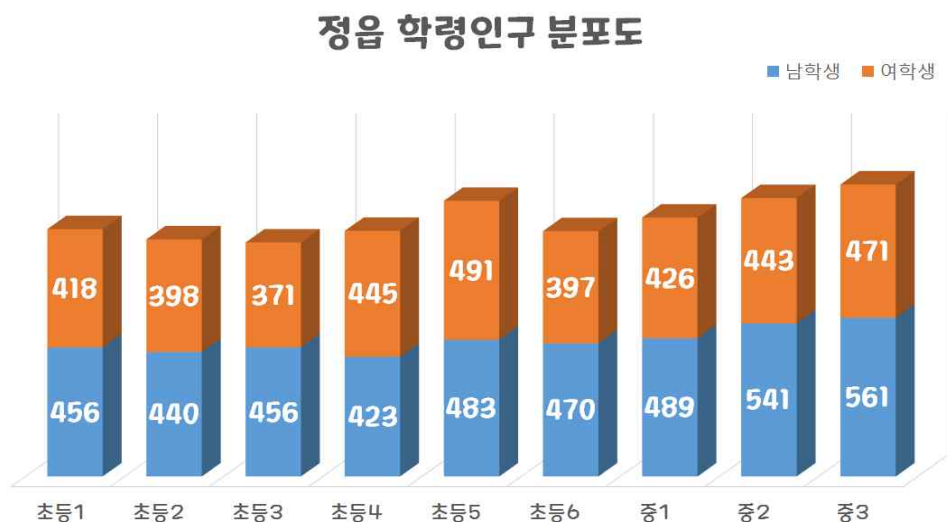
고도경제성장이 끝나 계급이 고착화되고 우리 주변은 고생하는 취업준비생과 몰락하는 자영업자를 심심치 않게 보면서 부모와 일가친척, 지인들의 모습을 통해 학습된 무기력함은 학생들로 하여금 비전을 상실하게 한다. 특히 농촌이 그러하다. 비전을 잃은 학생들은 게임과 같은 현실 도피적인 쾌락과 ‘소확행’이라 일컬어지는 문화에 기대어 하루를 나고 있다. ‘돈’을 제외하고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더 이상 도전할 가치와 기대가 없도록 만든 현실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다음 발전 단계로 나갈 수 있다. 동기부여의 첫 단추는 진정성 있는 칭찬이다. 우선 아이들이 조그만 성취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도록 해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태도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교사나 학부모가 간단한 칭찬과 상으로 인정욕구를 해소해주면 된다. 아이들의 부정적인 모습만 지적하고 짜증내기 보다는 칭찬거리를 일부러라도 찾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 비전 상실의 시대에 자신의 롤모델을 찾아 자신을 대입시키면서 스스로 자가발전 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어떤 성장 과정과 노력을 해왔는지 보여주는 아이돌 팬덤 현상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롤모델과 자신을 병치시키고 끊임없이 자극시키는 것이다. 이어 자신의 능력 최대치를 목표로 세우고 도전하게 하는 것이다. 도전에 앞서 부모와 교사가 그동안의 결과와 평가 위주의 담화부터 내려놓고, 과정과 목표와 노력을 중시하면서 학생의 실패와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짜증날 때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I-메시지 대화법’으로 자녀와 학생을 대해야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I CAN DO IT, JUST DO IT. 이 두 구절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4. 학교는 끝없이 개방적이고 유연해야 한다.

그동안 학교는 일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운영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되었다. 하지만 지방소멸의 시대에 기업이든 학교든 그 어떤 조직이든 혁신 없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기득권에 안주한 조직은 죽었고 반면에 혁신한 조직은 살았다. 학생수 기본 수급이 어려워 이미 폐교되었어야 할 읍면단위 학교들에 전국에서 인재들이 몰려오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교사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자신감, 끊임 없는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이다. 이 세 가지만 있어도 학교는 살아남아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위해 리더와 구성원들은 협력 체제를 구축해 장애를 제거하고, 위협요소로부터 방어하고, 조직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무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학교는 자신있게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지역 사회와 학부모에게 다가 가야 한다. 또한 유연한 사고로 시대변화와 흐름을 수용하고 새 시대에 맞는 교육혁신, 지원체제 혁신을 꿈꾸고 이를 구성원들과의 치열한 협의과정을 거쳐 **실천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 몸을 던지면 그 나머지는 혁신으로 가

게 되어 있다. 익숙한 것은 편하지만 보람은 없다. 혁신은 잘 될거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과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성과 활성화가 답이다.

5. 함께라면 그 무엇이든



본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 현재 1개 학년 4개 학급 100명 내외인데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으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에 적절한 구조이다. ‘기숙형공립고등학교’라는 이점을 충분히 살리고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잘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교사들은 대부분 젊어 열정에 가득 차있고 고등학교 성적 상위 5% 들어야 될 수 있는 뛰어난 인재들이다. 자부심 또한 강하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마주하는 것은 답 없는 학생들과의 실랑이와 산처럼 쌓인 업무에, 아이 말만 듣고 와서 항의하는 학부모에 몇 번 상처를 받다보면 수동적이 되고 방어적이 된다. 이제 간섭이 아니라 참여를, 명령이 아니라 협력을,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집단지성을 모으면 정읍 유력 사립고를 뛰어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상위권은 교과목별 자발적 스터디그룹 형태를, 중하위권은 선택과 집중으로 전북대와 공무원 시험을 목표로 한 학습전략을, 하위권은 미래공방과 창업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자율동아리 지원을 집중하고자 한다. 자사고 이상의 비전과 전략으로 내실 있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맞춤형 학생복지와 빠른 교육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면 지역 명문학교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함께 꿈꾸고 실천한다면 정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 멋진 상상으로부터 시작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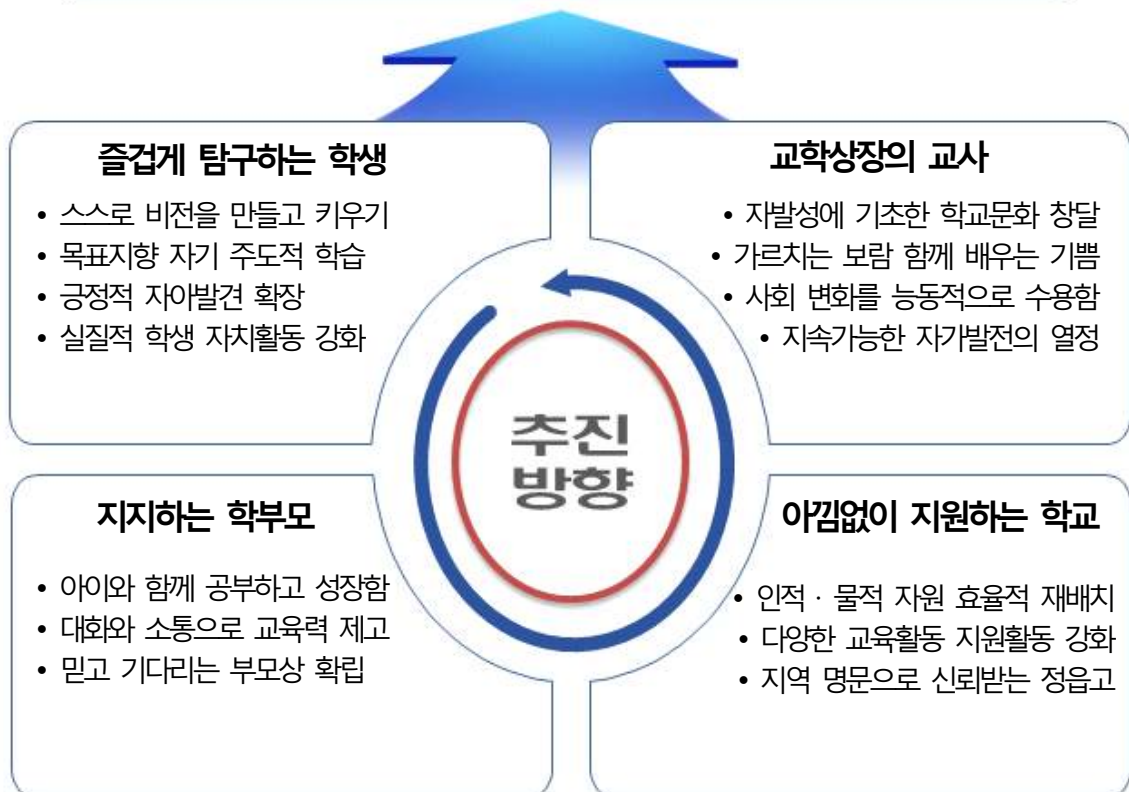
4 학교경영의 목표

교육비전

꿈·끼 UP, 배움 UP 전북 최고의 명문 공립 고등학교

교육지표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미래인 육성



중점실천과제

-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자치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학생
- 열정과 개방성으로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교원
- 인성 중심의 교육공동체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

배움이 즐겁고 꿈을 키우는 도전하는 정읍고등학교

▶ 자주인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꾸려가고 타인과 공감하는 인간

▶ 창조인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와 상상을 비전으로 만드는 인간

▶ 평화인

생명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

▶ 교양인

건전한 심신으로 인격을 높여 사회에 공헌하는 인간

▶ 학생상

도전과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키우며, 남을 배려하는 건강한 학생

▶ 교사상

자발성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며 학생에게 꿈을 열어주는 교사

▶ 부모상

자녀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세계관을 키워주는 부모

▶ 학교상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배움의 즐거움과 가르치는 보람이 있는 학교

II

학교교육과정 운영

기본방향 - 인성이 곧 성적이다

- 가.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자기주도적 미래형 교육과정
- 나.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르는 교육과정
- 다. 급변하는 세계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개방형 교육과정
- 라. 다양한 체험으로 진로를 모색하는 체험·봉사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 마. 공감과 배려를 실천하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편성

가. 교육과정 수립

- 1) ‘뭇이 중헌디?’ 학생요구와 미래요구를 수용한 교육과정
- 2) SWOT 분석을 통한 현실 진단과 대안적 교육과정
- 3) 비전에 따른 행복한 교육공동체 운영의 실천적 교육과정
- 4) 백화점식 방과후교실 중심 교육과정보다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나. 교육과정 편성

- 1) 기본에 충실하고 미래핵심역량을 준비하는 교육과정 편성
- 2) 동아리 연계 진로 탐색 및 체험 활동 중심 교육과정 편성
- 3) 수학, 과학 블록타임제 및 학생 선택 존중 교육과정 편성
- 4) 지역 사회의 요구와 환경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 5) ‘코딩’교육 정착을 위한 컴퓨터 활용 및 프로그래밍 교육과정 편성

다. 교육과정 실현 (예산 500만원)

- 1)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자치 교육과정 실현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무회의 공유
- 2) 교육공동체의 비전 공유를 통한 학교 교육과정 통일성 확보
 - 교사의 자발성과 책임에 기반한 신바람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학부모 이해 증진으로 실천 동력 확보
- 3) 교육과정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의 내실화
 - 학교 내·외부 요청 컨설팅을 통한 교육과정 평가-피드백
 -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를 통한 자율평가시스템 구축(학기당 2회)

라. 교육과정 실천 전략

- 1) 단 한 명도 졸지 않는 배움이 즐거운 학교 만들기 (예산 2000만원)
 - 한 학기 한 권 몰입 독서를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
 - 학생 자신이 선택한 교육과정 실천으로 평생학습능력 전환
 - 교사의 수업개선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협동 중심, 활동 중심의 수업
 - 학생중심 수업 및 교과 속에서 잘 듣고, 잘 쓰고, 잘 말하기 구현
 -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태도 함양으로 공부하는 힘 기르기
 - 학생부종합전형대상자 대입전문가 1:1 맞춤형 입시컨설팅(1학년)
 - 더딤아 정서지원 및 맞춤형 학습동기강화 프로그램 운영
- 2) 단 한 명도 꿈을 버린 아이가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교육 (5억원)

- ‘위인전 읽기 운동’을 통한 인생 롤모델 만들기과 비전 세우기
 - 미래공방을 통한 4차산업혁명의 체험형 인큐베이팅 사업 전개
 - 분야별 멘티-멘토 연계사업으로 안정적 진로탐색과 학습환경 조성
 - 대학교, 산업체와 연계한 중소기업 체험과정과 위탁 교육
 - 창업동아리와 정읍 첨단과학시설과 스마트 팜 농장 연계 체험학습
 - TV프로를 통한 진로교육(성공정석 쉼, 백종원의 골목식당 등)
- 3)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기주도적 체험학습(예산 수익자부담+ 2000만)
- ‘학생자기개발연수’ 프로그램 운영(성적 상관없이 연수공모-연수장학금 지급-실행-성과 발표- 학생부 기록-학종 자기주도적학습 사례 자료로 이용
 - 국토사랑 등산 프로젝트 1인 1산 (백두산, 금강산, 한라산, 지리산)
 - 각종 산업박람회 참여로 현대 과학기술 이해
 - 구글지도, 카카오 맵, 지하철을 이용한 조별 대중교통현장체험학습
 - 면세점과 복합쇼핑몰(스타필드) 체험을 통한 현대유통업 트렌드 이해
 - 시장견학(전통시장, 가로수길, 홍대거리)을 통한 소규모 서비스산업 이해
 - 중국 상해 푸둥단지(경제금융)와 서안(역사문화) 해외문화체험
- 4) 3년차 혁신학교운영의 강점을 살린 행복한 학교 만들기
- 교육공동체의 재구성과 진화를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
 - ‘개방형’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선택과 집중의 학사일정 수립
 - 스토리가 있는 학생주도의 수업 및 자치활동으로 학종 전형자료 축적

3

참학력 학교교육과정 운영

가. 즐거운 수업을 위한 전문 학습공동체 운영(예산 2000만원)

- 1) 1교사 1동아리 조직 및 연구 활동 지원
 - 독서동아리, 학습동아리, 취미동아리 의무 가입 및 지원
- 2) 수업 컨설팅 능력 향상 지원
 - 내·외부 수업 컨설팅을 주고 받으면서 수업 컨설터너로서 역량강화
- 3) 동료장학 활성화 및 수업 나눔 실현 지원
 - 수업공개 및 수업 성찰을 통한 수업 개선
 - ‘내가 수업명장’ 선발 - 학습연구년제 공모 우선지원
- 4) 교직원 가족이나 친구를 동반한 교직원 공감여행 추진(코치배낭 여행식)
- 5) 동료간 소울메이트 만들기 및 수다모임, 독서모임 구성
- 6) 여성 교원 육아시간 보장 시간표 구성과 업무 분장
- 7) 교원 성장 연수시 예산 지원(예: 배움의 공동체 해외 연수)
- 8) 신입생 모집 교사 동원 폐지 -교장이 비즈니스 맨, 정읍교육청 주관 합동 입

시 설명회 등으로 교육 외 업무 감축

나. 즐겁게 배워 피와 살이 되는 수업으로 혁신(예산 1000만원)

- 1)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적용
 - 거꾸로 수업, 하부루타 수업, 수학과학 블록타임수업 등 연수 적용
- 2) 도서관과 특별실 활용 수업 확대
 - 실험 실습, 체험 중심의 탐구학습
- 3) 협력 학습으로 자기주도적 배움 나눔 수업
- 4) 학기말 교과연합 융합(STEAM) 프로젝트 수업
- 5) 사고력을 키우는 토의 및 토론 수업
 - 디베이트 수업, 보고서작성 및 발표수업, 질문지 수업, 인터뷰 수업
- 6)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수업 전개 - 잊혀지지 않는 스토리텔링 및 매체 수업
- 7) 학교축제 연계 수업(학생자치, 연극, 예술체험, 프로젝트 수업)
- 8) 유튜브와 패친 활용교육을 통한 상호 이해와 공유, 창의능력 개발

다.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체험활동 (예산 2000만원)

- 1) 나누고 봉사하는 삶
 - 청소 사각지대 봉사학생 자긍심 고취와 학생부 기록
 - 학습더딤아 지원 봉사 학생멘토 교학상장 및 학생부 기록
 - 급식 및 도서도우미, 생활지도 도우미 활동 등 장려
 - 글로벌 봉사단체 가입 및 후원(RCY,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등)
- 2)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학교
 - 게임캐릭터명 동아리 모집과 레벨링 시스템 도입(레벨업)
 - 게임식 연합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자기주도적 성취감 고취
 - 1인 2 동아리 활동(교과, 예체, 적성 및 봉사)장려
- 3) 대동마당으로 큰 축제로 공동체의식 구현
 - 학생회 주축 나누고 배려하고 협동하는 축제 기획 및 실행
 - 학교비전을 공유하고 정읍고인으로 긍지를 지님
- 4) 자율활동
 - 학교 및 학급생활규정 제정(끝장 토론-정하고 -지키고-내면화하기)
 - 학생자치법정, 또래 상담, 또래 조정
 - 기숙사 자치활동(쾌적하고, 안전하고, 배려있는)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 실질적인 학생회 운영 (설문조사 -의견수렴-회의 상향식 민주집중제)
- 5) 진로활동
 -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내실화(형식적이고 자습만 하는)

- 동아리활동과 교과 진로 활동 연계
- 스스로 탐색하는 진로교육과정 안내 및 운영(마인드 맵 등 이용)
- 화랑프로젝트(역사문화기행), 장보고 탐사단(산업시찰), 신사유람단(신문물시찰) 운영 - 조별로 구성하여 스스로 탐사체험계획을 세운 공모 당선자에게 여비 지급 및 출석인정 체험학습 허용
-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 운영 및 학부모 진로상담 강화
 - 년 2회 ‘진로코칭데이’ 운영
- 교사의 진로 진학 상담역량 강화 및 학년별 동아리운영 활성화
- 각종 산업 박람회 및 전시회에 가정체험학습 및 현장체험학습 광범위 인정

라. 스스로를 존경하는 인성교육(예산 500만원)

- 1)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학생 1인당 연 2회 의무 상담 기회 제공
 - 필요시 가정연계 집단상담
- 2) 스포츠 동아리 활성화로 학교폭력 예방
 - 방과후 탁구교실, 축구교실, 요가교실, 배드민턴교실 운영
 - 축제시 육체미 대회 운영, 1인 1운동 익히기(검도)
- 3) 자존심 향상 프로젝트
 - 학교-가정 연계 잔소리 줄이고 칭찬거리 찾아 칭찬하기
 - 난 괜찮은 아이야, 잘 할거야, 실패해도 괜찮아 반복하여 암묵지 형성
 - 큰 꿈 이미지 트레이닝(나는 서울대생, 나는 대학 총장, 나는 주커버커)
 - 부모와 화해, 교사와 화해 - 엮어주기 인증샷 찍어 올리기 컨테스트
- 4) 배려와 공감의 확산되는 인성교육
 - 칭찬 릴레이 운동 및 칭찬쿠폰 증정운동 전개
 - 사랑 노래 부르기와 시낭송으로 아침 시작
 - 독거노인 말벗 봉사(2인 1조) 및 동네 어른 전기 쓰기
- 5) 롤모델 -스스로 별이 되어
 - 큰 바위 얼굴 정독 및 위인전 읽기를 통해 태도 및 가치관 접합
 - 습관달력 60일 프로젝트로 작은 습관부터 형성- 성공 공식화
- 6) 동기유발을 위한 게임레벨링시스템 도입
 - 학급 봉사, 선플, 선행 점수 레벨등급 업으로 자아긍정심 향상
- 7) 거점학생 매칭시스템 - 부정적 자아와 수업방해로 학급분위기와 정서를 지배하는 학생(거점학생)을 긍정적 마인드 소유자와 결합시킴으로써 공부하는 학급문화 형성, 멘토 학생 학생부 기록
- 8) 학급 및 학교내 갈등조정위원회(또래조정)내실화
 - 학교폭력 예방 및 자치능력 향상, 학생부에 리더와 조정자 역할 기록

마. 특색사업 및 노력중점

1) 특색사업 (4억 2000만원 -도교육청)

- 사 업 : 잡스쿨(미래공방)을 중심으로 한 비즈쿨(BIZCOOL) 운영
- 취 지 :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제작해보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도록 이끄는 과정 중심의 개방형 프로젝트 교육(서울형 미래공방교육 인용)
 - ① 공부에 흥미를 잃은 아이들이 창업동아리에 가입하면서 비즈니스 세계에 눈 뜨고 스스로 필요에 따라 학업에 열중
 - ② 메이커 교육을 통해 상상하고-만들고-공유하는 창작문화 정착
 - ③ 학력수준에 상관없이 동아리 또는 교육과정(특히 저학력층 중심) 형태로 구성하여 살아있는 학교문화 형성
- 내 용 :
 - ① 미래공방(전북형 메이커 교육)개설 - 중소기업청,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연계 지원 - 상상한 것을 창작물로 만들고 변화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성취감-UP, 자존감 - UP
 - ② 정읍지역 첨단과학산업단지, 전북과학대학 연계(MOU)연계 시스템 구축
 - ③ 비즈쿨 페스티벌 참가와 타 학교 교류로 정보 공유, 교내 창업동아리 대회
 - ④ 교내매점 판매 창업동아리(유통, 제작)운영 - 동아리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유통 판매 실 체험 (학교운영위원회 협조 - 학부모 중 매니저 고용)
 - ⑤ 공유·개방을 통한 역량강화 및 신사업 아이템 구상 - 현실화 - 특허출원
 - ⑥ 학교협동조합 설립(교육부 2000만원지원) 및 운영
- 기대효과 :
 - 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전과정을 프로세싱할 수 있는 능력, 협업능력, 창의력 향상으로 4차산업 미래인재상 구현
 - ② 자는 아이, 무기력한 아이가 사라지고 삶과 학습이 일치되는 교육

2) 노력중점(1) LEVEL- UP 프로젝트 운영 (1000만원)

- 취 지 : 교원의 전문성 향상으로 실력있는 선생님, 신뢰받는 학교
- 내 용 :
 - ① ‘나는 수능형 문제 공장장’
 - 교사 개인별, 팀별 수능형 문제 출제 훈련 및 출판 지원
 - 수능 영역별 문제 출제 및 분석 능력 향상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위원 초빙 연수 영역별 30시간 실시
 - ② 대입에 대한 외부 컨설팅 요원 초빙 연수
 - 학생부 종합 전형, 대학별 전형, 타 학교 사례 벤치마킹
 - 특색있고 차별화된 교과목과 교육과정 컨설팅

- ③ 팀장학, 동료장학 상시화 - 년 2회 수업공개 및 프로젝트 수업 진행
- 기대효과 :
 - ① 교사의 전문성 획기적 향상과 대입 전문가로 교사의 위상 제고
 - ② 향상된 대입성적으로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신뢰 회복

3) 노력중점(2) ‘팔목상대’ 프로젝트 (예산 2000만원)

- 취 지 : 기초학력 더딤 학생에 대한 학교 책무성 제고로 줄지 않고 눈빛 초롱초롱한 아이로 거듭남
- 내 용 :
 - 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맞춤형 지도 - 컴퓨터실 이용 ‘칸-아카데미’ 또는 기초학력보정학습 프로그램 운영
 - ② 효율적인 감독과 성취에 대한 정서 지원, 큰 보상 수여 - 재정 지원
 - ③ 심리상담 및 학습클리닉 병행 - 가정 연계 집단 상담으로 원인 제거
 - ④ 또래 수업멘토 배치로 또래 언어를 통한 학력 향상
 - 봉사내용 학생부 기록, 또래 멘토로 인한 성적 향상자 통 큰 상품 수여
 - ⑤ 방학중 대학생 멘토 그룹과의 연결(삼성장학재단 연결)
 - 입시경험 나누기, 막히는 부분 찾기
 - ⑥ 위기 증후 아이들 대상 교장과 함께 떠나는 ‘4H 자아탐색 여행’
 - WHO 나는 누구인가? - WHY 나는 왜 사는가? - WHAT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HOW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묻는 여행
- 기대효과 :기적적인 기초학력 향상, 학생 자존감 및 자긍심 향상,

4) 노력중점(3) ‘문제아’ 프로젝트(문제를 출제하는 아이들)

- 취 지 : 상위권 학생 대상 소규모 교과목별 동아리(스터디) 결성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교과목별 문제를 출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출제자의 입장이 되어 텍스트를 바라보게 되면서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됨
- 내 용 : (예산 500만원)
 - ① 팀별, 혹은 개인별 대회 진행. 게임식 운영도 가능, 선후배 연계
 - ② 1인당 2개 교과목 문제출제 동아리 가입 활동
 - 자기주도적 학습 사례로 학생부 기록, 부족과목 보충 효과
 - ③ 학생출제 문제은행 출판 판매 지원과 판매 허용 - 자부심 향상
- 기대효과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가는 관문 통과, 상위권대학 진학

5) 공무원시험 대비반과 전복대반 운영

- 중위권 수학포기자 중심 공무원반 운영, 한국사 특화반 운영

4

학교교육과정 평가

가. 평가 계획

- 1) 각 분야 자체평가 - 설문조사 - 분석 - 워크숍 집단 평가 - 피드백 - 계획수립(교육목표와 교육내용, 그리고 교수-학습 활동, 평가)
- 2) 형식적 평가 지양(보이기 위한 것이나 자족적인 평가 지양)
- 3)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가지치기**를 통해 차기년도 알찬 교육계획 수립
- 4) 교육력 제고를 위한 상시 자체평가와 객관적인 평가 및 외부컨설팅 수용

나. 평가 내용

- 1) 학교교육 비전과 목표에 도달하였는가?
- 2)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가?
- 3) 수준과 목표에(국가수준, 전북 교육목표, 학교목표) 잘 접근했는가?
- 4) 수업의 양과 질, 수업개선노력, 평가 방법 개선 등이 이루어져 있는가?
- 5) 학생들이 흥미와 성취수준에 만족하고 지속할 수 있는가?
- 6) 교원 업무 분장의 적절성과 행·재정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가?

다. 평가 방법

- 1) 학교교육과정 평가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외부 컨설터너 등 모두 참여
- 2) 학교평가 체크리스트 목록을 중점사업 및 핵심역량 등 교육력 제고에 둠

III

교직원 관리 및 지원

1

학교 교직원 인사 관리

가. 기본방향

- 1)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확립으로 참여의 학교문화 조성
 - 교직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원탁토론 활성화로 의견 수렴

- 2) 직무분석과 적성 및 희망에 기초한 업무분장
 - 교직원회의를 통한 자율적인 업무분장
 - 교육과정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업무 이동 최소화
 - 담임 및 수업중심의 생활지도 중심의 업무 분장(현행 유지)
- 3)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조직 구성
 - 위임전결규정 대폭 확대로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 불요불급한 업무 및 일몰사업 과감한 정비
 - 부장중심으로 부서 단위 책임 경영 평가제
- 4) 행복한 직장 구현
 - 다양한 문화 이벤트와 교직원 복지 구축, 다이렉트 고충 상담

나. 추진 내용

- 1)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와 인사자문위원회의 독립기구화
- 2) 교감 중심 교원업무경감팀제 조직 및 운영
 - 부장, 교무실무사, 혁신업무 주무관, 행정실장 중심으로 운영
- 3) 교직원의 근무평정 - 일하는 사람이 우대 받는 평가 , 다면평가
- 4) 각종 위원회 및 회의록 정비(간소화, 약식 이용)
- 5) 교장의 업무 참여와 수업 참여(결·보강 적극 수용, 한문, 상담, 문학, 사회, 진로), **대안교실 운영(문제행동 학생)**으로 교원 스트레스 완화.
- 6) 교장실을 소통센터로 상시 개방(부재중일 때는 교감 혹은 행정실장이 센터장, 북카페형 구성, 갤러리형 구성)
- 7) 매주 수요일 방과 후를 NO-COM DAY로 전원을 끄고 ‘테마형 교사 성장의 날’ 운영
 - 소프트한 교직원 동아리 활동부터 심도 있는 교직원 다모임까지 실시
- 8)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선제적 갈등 해결 및 교권 보호
 - 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경찰서,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 사기 저하 방지
- 9) 이 달의 봉사상 및 친절상 수여, **학습연구년제** 대상 적극 추천 및 지원

IV

지역사회 연계 활동

- 가. 지역 사회와 교육에 대한 협력을 위해 <정읍교육포럼> 운영
- 나. 내장산국립공원, 국립기상과학관, 박물관, 영화관 등 활용, 밀도 있고 다양한 체험학습 실시
- 다. 정읍교육혁신특구 협동조합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상생 모델 정착 (방과후 강사 및 간식, 식자재, 체험학습, 아동 복지, 스포츠 활동)
- 라. 산림청, 도교육청, 지자체 대응 사업 탐색 및 공모(예:인재양성프로그램 재구성, 산림청 학교 숲 가꾸기, 지자체 소공원 정비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 마. 각종 지자체 행사 적극 홍보 및 참여로 애향심 고취(동학동민혁명 사업)
- 바. 운동장 및 각종 시설 개방(학교교육 및 학생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 사.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으로 건강한 학력관과 좋은 부모 되기 운동 전개
- 아. 동창회와 학교발전에 대한 인식의 간극 해소, 지역사회 협력 촉매 역할

V

시설, 환경, 재무 등 일반경영

가. 예산편성의 선택과 집중

- 1) 관행적 예산, 우선 확보형 소조직 예산 축소, 핵심 사업 집중 편성
- 2) 학교자치 예산 대폭 증액 (학생회, 교무회의, 학부모회, 각종 동아리)
- 3) 각종 공모사업 지원과 학교발전기금 확대를 통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조건 충족
 - 공모사업은 담당자 업무로 귀결되지 않도록 관리자 선에서 주로 처리(아이디어와 공모계획서만 담당자 처리, 추진 및 결과보고서는 관리자 업무로 이관)
- 4) ‘예결산소위’ 활성화로 예산 편성·운영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 5) ‘학교급식소위’ 자치 운영으로 맛있고 안전한 급식 보장

나. 시설물 유지 관리

- 1)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시설물 상시 점검 노후 시설 개선
- 2) 취약지역 CCTV 설치로 사고 예방

3)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복도 및 화장실, 위생 전문기업 용역으로 항상 쾌적한 상태 유지
- 교육 활동시 절전보다는 냉난방기 적정 온도 가동

4) 급식 시설과 조리 기구 안전 및 청결 상태 점검, 식자재 공급처 불시 점검

다.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 1) 전문가를 통한 아름다운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학교숲가꾸기’ 사업 공모
- 2) 정원 디자인을 공모를 통해 아름다운 ‘정읍고 캠퍼스’ 만들기
- 3) 학생의 가드닝(정원관리)봉사를 통한 힐링 및 원예치료

VI

학교 발전 4개년 계획

1

준비기[2019년 상반기]

가. 대입대비 선택과 집중 교육과정 개설 운영

나. 지역 사회 및 학교 SWOT 분석과 조직 및 업무 진단

다. 경청과 ‘그윽한 관찰’로 각종 교육 내적, 외적인 상수 변수 요인 파악

라. 학교 구성원간, 지역 사회와 공감 및 친밀도 향상 프로젝트 진행

마. 과제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구성원별 **텔파이 기법** 다양한 의견 수렴

사. 학부모 교육 및 가정방문 운동 적극 전개로 학생-학부모-교사 이해도 향상

2

구축기[2019년 하반기]

가. 미래핵심 역량을 위한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 수립 및 예산 확보

나. 혁신학교 바탕으로 교육력 제고 중심의 조직 재구성과 업무분장

다. 고민 나누기, 질문 만들기, 토론하기, 과제 만들기 연수 추진

마. 배움의 공동체, 아이 눈으로 수업보기 등 선택형 연수 추진

바.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동아리별, 팀별 워크숍 및 연수 지원

마. 교원의 개인별, 팀별 자체평가, 교차평가 진행 후 피드백

3

도약기(2020년)

- 가. 학교자치 원년으로 각 자치 모임 활성화
- 나. 미래 핵심 역량을 위한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시작
- 다. 수업혁신과 학생의 자긍심 향상으로 살아있는 학교로 변화
- 라. 구성원들의 학교에서 행복 찾기 프로젝트 운영
- 마. 응비하는 정읍고 브랜드 리메이킹(로고 및 각종 상징물 현대화)
- 바. 학력 및 학교운영에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상승(객관적 지표 사용)
- 사. 혁신학교 재지정 운영
- 아. 대입 및 진로지도 시스템 완비
- 자. 학교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전방위 홍보 강화

4

정착기(2021년 이후)

- 가. 학교자치 시스템 완성 및 실천 내용 지속
- 나. 미래 역량을 기르는 학교교육과정 지속 운영
- 다.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수능 모의고사, 대입 성적 향상(150% 목표)
- 라. 고졸 공무원 시험 연 7~10명 합격
- 마.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보람있는 학교,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 바.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싶은 제 1순위 학교